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후원 <2020년 10월~12월>

후원금

고O순, 안O숙, 백O선, 정O수, 박O해, 이O미, 이O영, 장O자, 지O자, 장O동, 최O경, 최O일, 김O연, 김O순, 이O순, 유O현, 이O진, 최O혜, 김O숙, 황O미, 황O영, 안토니오, 영일조경, 교통성당 빈첸시오, 최O연어르신보호자, 이O춘어르신보호자, 김O숙어르신보호자

후원물품

고성군청, 고성군보건소, 강원도노인복지협회, 문화장애인복지협회, 춘천교구사회복지회,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고성군자원봉사센터, 강원농업기술원, 요셉, 변O덕, 박O덕, 궁중해장국,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파리비게트동부점, 어르신가족(우O업, 이O춘, 김O이, 박O순, 황O순, 양O례, 하O숙, 장O숙, 전O애, 최O례, 김O숙, 이O복, 전O수, 박O자, 이O남, 박O연어르신)

자원봉사

까리따스수녀회수도자

<후원금 사용내역>

수입내역		지출내역	
전기이월	1,140,858	수용비	4,466,160
지정 후원금	-	지정 후원금	-
비지정 후원금	4,065,791	차기이월	740,489
합계	5,206,649	합계	5,206,649

♥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은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이며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대없는 사회, 노인과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 기	방 임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문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후원 및 자원봉사

■ 후원방법

- 정기 및 일시후원
- 물품후원(생활용품, 위생용품, 보장구 등)
- 기업/단체후원

■ 후원계좌

농협 327051-51-075783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

■ 후원문의

033-638-6004 / 638-6007

※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활동내용 : 프로그램지원 및 노력봉사 (식사수발, 환경미화, 미용, 의료 등)
- ※ VMS 자원봉사시간 등록 가능

■ 홈페이지

http://www.caritasmateo.com

쪽빛바다

제 40회

발행처 (2477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버리개길 42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

대표전화 033-638-6004

발행월 2021년 1월

MISSION 가족같은 편안함으로 실현되는 감동과 행복

- VISION
- 어르신과 동행하며 만드는 행복
 - 경청과 존중으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 기쁨과 열정의 무한 감동 서비스
 -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복지문화를 선도하는 요양원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에서는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차가운 기운을 그대로 느끼며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을
잠시 침묵 속에서 바라본다.
봄에는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푸르름의 절정을 이루며,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낸 가을을 지나
서서히 자신을 비워
비로소 겨울에는 모든 것들을 떨쳐 버리고
아래로 아래로 영양분을 내린다.
가지가지마다에 마음을 선물하여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한다.
뿌리로 내려온 물을 통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싹으로 다시 틔우기 위한 준비를 한다.
새로운 봄이 오면 물줄기를 다시 풀어 울리기 위해..
그리하여 새싹을 틔워 생명의 찬란함을 노래한다.



시설장장금자 (S.메리노)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상이 변했다.

함께 부르는 노래와 다함께 어울려 벌였던 잔치
하하하 호호호 웃으며 박수치며 마음만큼은 날아갈 것 같은 춤사위....
어르신들과 나누는 일상의 친구가 그림다.

‘함께’ 라는 단어가 이제는 멀리 사라지려나?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즐겼던 일상들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려온다.

함께했던 시간들에 감사하고
버텨온 직원들에게 토닥토닥 칭찬해주고
견뎌온 어르신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싶다.

봄의 새싹을 틔우기 위해 지금의 겨울을 견뎌내는 나무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라져가는 일상의 소중함들이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희망하며
이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편안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요양원풍경



요양원 소식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10월 요양원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과 11월 종사자 코로나 전수검사 실시하였다. 현재 코로나 검사는 주1회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발열체크 및 소독, 환기를 수시로 함으로써 코로나 감염예방에 힘쓰고 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강원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물리치료

어르신들의 만성적인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는 온열, 전기, 초음파 치료와 정형용 운동장치, 사이클, 짐볼, 밴드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한 관절가동 및 근력증강운동이 있으며 보행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추억 속 이야기

나에게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있다. 출근 전 매일 거르지 않고 천원을 주시던 할아버지, 지금은 20년이 훌쩍 넘은 마음 깊은 추억 속 이야기이다.

구순이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보내시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동네 어귀에서 넘어지시어 몸져 눕게 되었다. 그로부터 5개월이 흐른 어느 날, "아~아" 하시며 부르시더니 약을 사오라고 하셨다. "무슨약이요?" 하고 여쭙니 "약 먹고 죽을란다. 이래 살아 뭐하겠노" 하셨다. 종일 방에만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할아버지~ 오죽 답답 하셨을까? 그때 마침, 아이가 맞추던 퍼즐을 꺼내어 한조각 한조각 맞추게 하니 흥미를 가지셨다. 그림도, 글자도 제법 잘 맞추시어 동화책도 읽게 해드렸다. 퇴근 후 돌아오면 고개를 까우뚱이시며 "아랑 아랑은 무슨 사이고?" 하고 흥부와 놀부 두 형제의 관계도 물으셨다. 나는 목청 높여 그 책을 읽어 드렸고, 그 후 할아버지는 다른 책들도 읽어 달라고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또 한번 쓰러지셨고 방밖만 바라 보시며 마당에 나가 풀도 뽑고 갈배추도 심어야 하는데 하시며 지팡이만 찾으셨다. 예전같으면 마당에 풀 한포기 없었겠지만 끝내 할아버지는 마당을 나서지 못한채 멀리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지금은 오래된 빈자리에 추억이란 이름으로 대신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의 할아버지는 그대로이다.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 듬뿍 넘치게 주신 할아버지의 따스한 온기와 사랑이 아마도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한 것 같다.

천원을 주시는 것이 할아버지의 사랑표현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나는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내 마음 속의 사랑과 온기를 오래도록 전하고 싶다.

이 자리에 머물게 됨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도 도전을 위해 '파이팅'을 외쳐본다.



생활지원팀 이현숙

2021년 1분기 일정

- 1월 사랑방 손뜨개, 차마실, 간식을 부탁해
- 2월 1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명절지내기
- 3월 어르신 반상회, 뷰티샤롱, 운영위원회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